

지난해 인도푸드 매출 25% 감소… 루피아화 약세 때문

□ 주요내용

인도네시아 식품 대기업 인도푸드 속세스 막무르(Indofood Sukses Makmur)의 지난해 매출은 2014년 대비 25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루피아화 환율이 폭락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측은 전했다.

사측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(IDX)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인도푸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 9,700억으로 2014년도 순이익인 3조 9,500억 루피아보다 9,800억 감소했다.

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4년보다 9.8% 하락한 3조 5,600억을 기록했다. 지난해 인도푸드의 매출액은 0.7% 증가해 64조 6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.

한편 인도푸드는 신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그룹과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했다. 인도푸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“새로운 인스턴트 누들을 준비할 거라는 것 외에는 얘기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(출처 :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/03/30)

□ 시사점

인니 최대 식품기업이자 세계 최대 인스턴트라면 제조업체인 인도푸드도 루피아 가치 변동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음. 이처럼 루피아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지 수입 및 유통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. 현재 루피아 가치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이 많아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임.